

# 일제잔재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 전북교육청, 친일작곡가 교가 변경·일제식 용어 개선·역사교육 강화 등 추진

전북교육청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 초부터 친일작곡가 교가 교체, 일제잔재 청산 공모전 등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심화되면서 역사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 등 총 10개교에서 교가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 교가는 친일작곡가가 작곡했다.

현재 초중등음악연구회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제작위원회가 교가 음원

제작 및 녹음 방법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학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사의 경우 학교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현재 교육방향이나 시대정신에 동떨어진 내용은 개사하기로 한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10월 중 새로운 교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나머지 학교들도 2020년 분예산을 확보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교가 교체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중등음악교육연구회는 도내 초·중·고교의 교가를 수집·분석해 총 25개교에서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교육현장에 깊숙이 박혀 있는 일제식 용어나 일본식 조지문화도 개선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일제잔재 청산 공모전을 통해 총 112건을 접

수했고, 이중 15건 정도를 개선 권고 용어로 심의 중에 있다.

심의를 거쳐 8월중 학교로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선대상 용어로는 시정표(→시간표/일과표), 시간장치(→장급장치), 남기(→내는 날), 신입생(→새내기), 절취선(→자르는 선), 졸업사정회(→졸업평가회), 내교(→학교 방문) 등 학교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 꼽혔다.

또 역대학교장이나 기관장 사진 게시는 외부공간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앨범 등에 별도로 보관하는 방안을, 일제 식민지를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진 가이즈카 향나무가 교육으로 지칭된 경우에는 변경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올바른 역사관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초등역사수업 디자인 연수를 비롯해 역사교육 특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등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6일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수업 디자인 연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주변국과의 관계, 그 속에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역사교육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역사 보조교재 편찬도 8월중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는 학교현장에 보급해 초등 5~6학년 특성과 발달에 맞는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에 전북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내년 7개교 개교로 전북교육여건 개선

전북도내에 내년 7개 유·초·중학교가 한꺼번에 신설 또는 이전신설 개교할 계획이어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내년 3월 전주개발지구 내에 5개교가 신설, 완주지역 2개교가 이전신설 개교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3월 개교학교는 단설유치원 1원, 초등학교 3교(병설유치원 포함), 중학교 3교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혜교시티'에 개교하는 학교는 전주새울유치원, 전주자연초등학교, 전주화정중학교로 유·초·중학교가 동시 개교한다.

또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천지구'에는 효천초등학교, 덕진구 만성동 '만성개발지구'에는 전주양현중학교가 개교한다.

완주에서는 청원초등학교는 병동을 삼봉로에서 둔산리로 이전신설 개교

(221억 원 소요)함에 따라 '완주군 소재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이뤄졌던 봉서초등학교 과밀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로 삼례중학교(남중)는 삼례여자중학교와 통합하여 남녀공학으로 전환, 이전신설 개교(209억 원 소요)하면서 삼례지역 교육여건 개선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익산시 부송동 이라부송초병설유치원이 9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익산부송유치원)으로 전환돼 유아교육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주개발지구들이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년에 전주 5교 개교로 교육여건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개벽과 근대 학술대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원불교사상연구원은 '개벽과 근대'를 주제로 15일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의 '근대'를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하지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경희대 공공대학원 김상준 교수가 다시 보는 동학혁명'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서며, 두 번째는 요카이치대학 기타지마 기신 교수가 '토착적 근대화의 지구적 근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첫 발표에 나서는 김상준 교수는 한국사회학회 연구이사 등 여러 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공저 '한법 다시 보기', '탈20세기 대화록', '문명충돌 현장을 가다' 등 다수의 저서를 편찬했다.

기타지마 기신 교수는 오사카외국어대학 인도파키스탄어학과를 졸업하고, 정토진중 계열의 정천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흑인연구모임대표 및 지역문화학회에서 활동하면서 6년 전부터 원광대와 학술교류를 시작해 동학을 접하고, 그동안 연구하던 인도와 아프리카의 독립운동 사례와 결부시켜 '토착적 근대'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철학을 전공한 조성환 박사는 '한국 근대의 탄생'을 편찬하고, '개벽'의 관점에서 한국근현대사상사를 다시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허남진 교수는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중점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북대 ONE-YEAH 협동조합이 최근 전북대 건지광장에서 직접 재배한 멜론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가졌다.

## “미래 창업농이 키운 멜론 맛 보세요”

### 전북대 ONE-YEAH 협동조합, 학생들이 직접 수확한 멜론 홍보·판매 행사 성황

국내 최초 국립대학교 국유재산을 임대해 농사를 짓는 ONE-YEAH(원예) 협동조합이 최근 전북대 건지광장에서 직접 재배한 멜론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가졌다.

전북대 ONE-YEAH 협동조합은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원예 분야 참여 학생들이 주도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원예분야 작물 생산/가공/판매 등 사업을 통해 현실무능력 함양과 예비청년창업 농 양성을 위해 지난해 설립됐다.

현재 멜론파당, 농미고, 커피에풍

단호박, 헤이유하이 등 4개 작목반을 운영 중이며, 각각 멜론과 토마토, 단호박, 고구마, 화훼작물 등의 재배활동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주최하고, 전북대 행복창업PLAN 사업단(단장 황인호 교수)과 ONE-YEAH(원예) 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이 영농창업동아리 인큐베이팅 모델로 육성한 ONE-YEAH(원예)협동조합 작목반인 '멜론파당'이 재배하고 수확한 멜론을 선보이고, 이 사

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후 4시부터 이어진 홍보와 판매에는 전북대 직원과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성황을 이뤘다.

이준주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부단장은 “원예분야 참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ONE-YEAH협동조합은 국립대학교에서 학생창업모델을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해준 최초의 사례로, 전북대가 청년창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 수립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16일 도교육청 7층 전북학습지원실에서 일반고 검토위원 10명과 교육청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2020년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고 검토위원 협의회를 추진한다.

이날 협의회는 일반고 교원 및 학생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 주제-내용의 현장적합성 및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2019년 지원 내용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2020년 지원

방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8월 30일까지 일반고 94개교를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을 거친 후, 9월 6일 현장지원단·교육전문직이 현장 의견 적정성 검토와 수렴된 현장 의견 반영방안을 협의해 9월 중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교 특색을 살려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진로·적성·흥미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산대WISSET사업단, 전북이공계청소년학술제 개최

군산대WISSET사업단(단장 박성신)이 다음달 6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19 전북이공계청소년학술제'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19 미리기는연구실 연구 종료에 따른 후속 행사로,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군산대WISSET사업단이 주관한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4주간 군산대를 중심으로 원광대, 전주대, 전북대 등 4개 대학에서 진행된 2019 미리기는연구실 참여팀이 참가한다.

2019년 미리기는연구실에서는 전북 지역 28개교 고등학생 170여명이 참가해 지역 4개 대학의 건축공학, 기계자동차공학, 나노화학공학, 바이오메디컬공학, 신소재공학 등 총 38개의 연구실의 연구 활동에 참여했다.

전북도교육청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일반고 고교생들이 지역 대학교 이공계열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체험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지역 최대의 청소년 학술제이다. 참여 학생들이 향후 이공계 대학 진학 및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도내 고등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전북이공계청소년학술제는 미리기는연구실의 성과인 포스터발표와 연구결과 발표 세션으로 구성된다. 발표 후에는 최우수팀, 우수팀, 장려팀을 선정한다. 부문별 최우수팀들에게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상이 시상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